

A619

한국산 온난검물벼룩속(요각아강, 검물벼룩목, 검물벼룩과)의 분류
이자민^P, 권은희¹, 민기식², 장천영^C

^C 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대구 712-714; ¹ 인하대학교 이과대학 생명과학과, 인천 402-751

1988년 7월부터 한국의 각종 담수역에서 채집되어 대구대학교 생물학과 표본실에 보관중인 온난검물벼룩(*Thermocyclops*)속의 검물벼룩 표본들을 재검토한 결과, 4종(*T. taihokuensis*, *T. crassus*, *T. dybowskii*, *T. uenoii*)을 확인하였다. 이중 *T. uenoii*는 한국미기록종이다. 온난검물벼룩(*T. taihokuensis*)과 유리온난검물벼룩(*T. crassus*)은 초봄에서 늦가을까지 우리나라의 강, 호수, 저수지, 연못, 우물 등 거의 모든 담수역에서 우점적으로 서식하는 종으로서, 흔히 함께 출현하지만, 수온이 높고 부영양성인 수역에서는 전자가, 반대로 경우에는 후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유리온난검물벼룩은 과거 일부 일본 문헌과 국내의 육수학적 보고에서 *Thermocyclops hyalinus*로 기록된 종으로, 본 발표에서 동종이명 관계를 명확히 밝힌다. 한철 온난검물벼룩(*T. dybowskii*)은 수온이 높은 소형 수역(연못, 물웅덩이 등)에서만 출현한다. 미기록종인 *T. uenoii*는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우물에서 발견되는 저하수성 종이다. 4종에 대한 상세한 삽화와 분류학적 고찰 및 종검색표를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온난검물벼룩과 유리온난검물벼룩 2종의 제5코페포디드 유생의 형태적 차이를 고찰하였다.

A621

韓國產 王 거미과(Araneidae)의 分類學的 再整理
김주미^P, 김주필^C, 조장환¹, 조봉상¹

^P 동국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서울 100-715; ¹ 한국거미연구소, 서울 133-040

왕거미과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미류 중 하나로 Araneae(거미목), Opisthothelae(뒷실젖거미아목), Araneomorphae(새실젖거미하목), Neocribellatae(새체판군), Araneoclada(거미분지구), Entelecynaes(완전생식자리아구), Higher Entelecynes(고등완전생식자리아구), Orbiculariae(원형그물거미지), Araneoidae(왕거미상과)에 속한 거미로서 현재까지 166속 2789 종(Platnick, 2000)이 세계적으로 보고되었다. 이 과에 대한 기록은 Clerck이 1757년 "Aranei suecici"에 *Araneus angulatus*(모서리왕거미) 등을 보고한 것이 최초이고, 한국산 왕거미과에 대한 기록은 1927년 일본의 K. Kishida가 日本動物圖鑑에서 산왕거미(*Araneus ventricosus*), 긴호랑거미(*Argiope bruennichi*)가 한국에 분포한다고 보고한 것이 최초이다. 이번에 동종 처리된 각시어리왕거미(*Neoscona adiantum*Walckenaer, 1802)와 들어리왕거미(*Neoscona doenitzi* Boesenber et Strand, 1906)는 예전부터 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 따라서 앞으로 이 종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패왕거미属(*Eriophora* Simon, 1864)의 어깨왕거미(*Eriophora sagana* Boesenber et Strand, 1906)와 사할린왕거미(*Eriophora sachalinensis* Saito, 1934)는 이번에 다시 왕거미과로 동종이명 처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7속 64종(Kim, 2000)에서 20속 63종으로 정리하였고, 각 종과 속에 대한 원기재와 문헌, 기재사, 채집지 그리고 형태적인 특징을 요약하여 재정리하였다.

A620

韓國產 酷蟲거미과의 分類學的 再整理
조장환^P, 김주필^C, 조봉상¹

^P 동국대학교 생물학과, 서울 100-715; ¹ 한국거미연구소, 서울 133-040

한국산 깡충거미과의 분류학적 재정리를 위하여 한국거미연구소의 표본과 논문을 이용하였으며, 기존의 *Salticus* 속은 삭제되었고 *Mendoza*, *Pseudeophrys*, *Talavera* 속은 새롭게 추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산 깡충거미과는 32속 64종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한국산 깡충거미과의 재정리를 통하여 회빨깡충거미(*Evarcha flammata*)를 미확정종으로 처리하였고 검은머리번개깡충거미(*Euophrys erratica*)는 어리번개깡충거미속(*Pseudeophrys*)로 세줄번개깡충거미(*Euophrys trivittata*)는 세줄번개깡충거미속(*Talavera*)로 살깃깡충거미(*Marpissa elongata*)는 살깃깡충거미속(*Mendoza*)로 어리수검은깡충거미(*Marpissa pulchra*)는 살깃깡충거미속(*Mendoza*)로 전속처리 하였으며, 번개깡충거미(*Euophrys undulatovittata*)는 여우깡충거미(*Pseudicius vulpes*)로 왕깡충거미(*Marpissa dybowskii*)는 *Marpissa milleri*로 수검은깡충거미(*Marpissa magister*)는 *Mendoza canestrinii*로 눈깡충거미(*Phintella melloteei*)는 *P. arenicolor*로 고려깡충거미(*Pseudicius koreanus*)와 고려여우깡충거미(*Salticus koreanus*)는 해안깡충거미(*P. himeshimensis*)로 동종이명처리 하였다. 결과적으로 춤깡충거미속(*Salticus*)이 제거되고 살깃깡충거미속(*Mendoza*), 어리번개깡충거미속(*Pseudeophrys*), 세줄번개깡충거미속(*Talavera*) 속이 추가되어 한국산 깡충거미과는 총 32속 64종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A622

Highly Conspecific Symbiotic Dinoflagellates Associated with *Alveopora japonica* and *Entacmaea quadricolor* in Korea and Japan

Soo-Jung Chang^P, Rodriguez-Lanetty Mauricio¹, Jun-Im Song^C

^P Department of Life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¹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Zooxanthellae are unicellular algae that occur as endosymbionts in many hundreds of common marine invertebrates. Whilst many studies of symbiotic dinoflagellate diversity have focused on tropical reef environments, only a few have explored the degree and pattern of divergence of these endosymbionts at high latitudes. In this study, the genetic diversity and specificity of symbiotic dinoflagellates associated with two common anthozoan hosts, the scleractinian *Alveopora japonica* and the giant sea anemone *Entacmaea quadricolor* in Korea and Japan were studied. Partial nucleotidesequences of 28S and complete ITS1 ribosomal DNA regions were used to identify, genetically, the endosymbionts extracted from two hosts. *Alveopora japonica* harbours symbionts belonging to *Symbiodinium* clade F, while *Entacmaea quadricolor* associates with *Symbiodinium* clade C. Moreover, the composition of these symbioses didn't change over the area, Korea and Japan, which suggests that these temperate cnidarian- microalgae symbioses seem to be highly specific.